광주·전남 광산 256곳 鑛害발생 가능성

〈광해〉

지역 광산 532곳 중 절반 해당

산림훼손·지반침하 등 환경피해

광주·전남의 광산 가운데 광해(鑛害)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 256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 개발광산 중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곳에서 산림훼손, 지반침하, 토양·수질오염, 각종 화학물질 발생 등 광산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가 나타난 것이다.

6일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제공한 '광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광해 발생 가능이 있는 광산은 광주지역 7곳을 비롯, 화순군 48곳, 보성군 26곳, 해남군 18곳, 순천시와 광양시 각 16곳 등 모두 256곳(금속광산 106곳, 비금속광산 123곳, 석탄광산 27곳)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지역 개발광산 532곳 중 절반에 가까운 48.1%에서 광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 중 현재 개발 중인 가행광산은 60곳이며, 잠정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휴지광산은 6곳, 폐광산은 190곳으로 조사됐다.

이이재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은 "광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아직 많은 만큼 앞으로도 광해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역주민의 피해상황 파악,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광산 발굴, 광산 및 광해 DB 구축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광해방지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5396곳이 광산으로 개발됐으며, 이 중 3730군데에서 광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광주지역 중견건설업체인 남광건설 김대기 회장(왼쪽)이 6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광주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10억원을 기탁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남광건설, 광주FC 후원금 10억

김대기 회장 "축구단 성공 창단 기원"

광주지역 중견건설업체인 남광건설(주) 김대기 회장이 6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광주시민프로축구단(광주FC) 후원금으로 10억원을 기탁했다.

남광건설은 지난 1970년에 설립된 광주지역 종합건설업체로 2002년에는 성실납세법인으로 인정받아 '대통령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고, 2009년에는 '광주광엑스포 주제전시관' 건축상 금상을 수상하는 등 탄탄한 재무구조와 우수한 시공실력을 갖춘 지역 향토기업이다.

광주시는 지난 6월부터 9월 말까지 1, 2차에 걸쳐 일반시민과 학생, 체육인 등을 대상으로 시민주를 공모한 결과 1만9000여 명이 참여해 애초 목표인 10억원보다 많은 15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 1일부터 12월30일까지 추가로 후원금 100억원을 모금중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대표적 지역기업인 남광건설이 지역 현안사업인 광주FC창단을 위해 거액을 기탁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기탁을 계기로 앞으로는 지역 내 기업체는 물론, 출향인사 연고기업에서도 후원 협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기 회장은 "광주시와 시민의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광주FC의 성공적인 창단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은 오는 12월 창단을 목표로 메인스폰서 광고유치 활동과 함께 구단임원 선임, 사무국 구성, 구단명칭 공모, 홈페이지 개설, 후원회 및 서포터즈 모집, 창단식 등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아·태 거버넌스 세미나

박 지사 등 70여명 참석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와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아시아·태평양지역 공공거버넌스 세미나'가 6일 신안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OECD 본부 존 브론달, 크리스티앙 베르게 국장, 아·태지역 아부 카심 모하메드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장, 네튼 장모 부탄 반부패위원장 등 17개국 26명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 전남도와 시·군 관계공무원 50여명이 이 참석했다.

전날 서울서 개최한 아태지역 공공거버넌스 학회에 이어지는 세미나로 1부 반부패에 대한 세계적 지도력과 협력 강화, 2부 반부패 전략 및 실행을 주제로 구성됐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날 함평 나비엑스포 공원, 신안 태평염전, 증도갯벌 및 신안 갯벌생태전시관등을 시찰했으며 7일에는 반부패정책과 전략의 형성 및 이행, 공공행정에서의 투명성, 청렴도 및 책임성 증진을 위한 반부패 메커니즘 등의 세션을 진행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전남 스크린 수 경남의 절반

영화 관객수 247만명으로 전국 최하위

광주·전남 지역의 극장 스크린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영화 관객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의 스크린 수는 전국대비 3%에 불과해 인구가 많은 서울(24%)의 8분의 1 수준이었고 대구(6%), 인천(5%)과 비교해도 상당히 뒤쳐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6일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극장 스크린 수는 총 53개로 서울(487개)과 경기(447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고 경남(110개)보다도 적었다. 광주는 스크린 수가 105개로 대구와 비슷했다.

또 전남의 극장 관객은 247만2719명으로 서울(4835만명, 관객 비중 31%), 경기(3213만명, 21%)보다 적어 각각 15분의 1,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도 548만8121명으로 관객 비중이 4%대에 그쳤다.

극장 매출 비중도 전남은 163억원으로 서울(3556억원), 경기(2236억원)는 물론이고 부산(950억원)에 훨씬 못 미쳤다.

안 의원은 "수도권과 지역별로 극장 관객 수나 스크린 보유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 되고 있다"며"스크린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지방 극장, 나아가 지방 문화 살리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대북 쌀 지원 민간운동 본격화

통일쌀 전남본부 선포식 갖고 모금 추진

민간차원의 대북 쌀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쌀 보내기 전남운동본부는 7일 전남도청 앞에서 선포식을 갖고 민간 차원의 대북 쌀 보내기 운동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대북 지원이 중단되면서 남아도는 재고쌀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 전남지역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다, 수해 피해를 입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주목, 지속적인 통일쌀 보내기 운동을 벌이겠다는 구상이다.

운동본부는 이에따라 이날 쌀 전업농회 전남본부가 기증한 쌀 20t외에 추가로 강진농협 등에서 80t을 구입, 오는 13일 북한 수해 피해지역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정우태 민주노동당 소속 전남도의원 등도 이날 10월 세비를 운동본부에 기증키로 하는 등 쌀 보내기 운동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히 이들 단체가 대북 쌀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을 벌일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에서 전남도가 조만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고 민간단체에 지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북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전남도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앞서 "전남도 등 각 지자체가 쌀을 대북 지원 물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향적 자세를 갖고 길을 터줘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부터 광주·전남 국감

광주시를 비롯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7일 광주지방기상청을 필두로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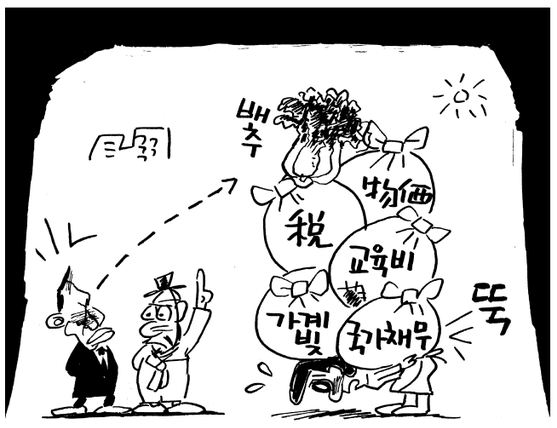
올해 국정감사 대상 주요기관으로는 광주고법·지법과 광주고검·지검, 광주세관(11일) 광주지방국세청과 익산국토관리청(14일) 광주시 및 전남도 교육청, 전남대, 소록도병원(15일) 등이 포함됐다. 광주과기원(19일)과 광주시청 및 광주지방경찰청(20일) 전남대병원(21일) 등도 국감이 진행된다.

전남도청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親서민 척추꺾기에 동참했습니다

1면 '특혜호텔'서 계속

자연녹지지역과 제1·2종 주거지역이었던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줌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2~4배 이상 올려준 것이다.

호텔 사업자는 가치가 올라간 토지를 지역 굴지의 아파트 건설업체에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이러한 혜택을 통해 호텔 사업자에게 어느 정도 수익이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정도 없이 사업자의 요구에 추가 지원을 결정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지역대학의 한 교수는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 특급호텔에 대한 지원은 과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혜택을 통해 얻는 사업자의 이익과 특급호텔을 건립해 광주시와 시민들의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자체가 특혜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대구시도 특급호텔 활성화 차원에서 시 예산을 지원해준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말 착공한 이 특급호텔은 지하 2층 지상 10층, 객실 205실 규모로, 이달 말 개장한다.

"송정역사 부지·시설규모 확대를"

호남고속철 개발 토론회 … 부산역의 3분의 1도 안된다

2014년 서울~광주간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거점역 역할을 할 광주송정역사의 규모가 부산역의 3분의 1, 동재구역과 신경주역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호남권 대표역사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역사부지와 시설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오후 광산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광주송정역사 개발방향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정봉현 전남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해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시한 광주송정역사 신축안의 시설규모가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게 계획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설계안에 따르면 송정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건축연면적이 1만8841㎡에 불과한 반면 부산역사는 6만1191㎡으로 송정역사의 3.2배에 달하고, 주변 인구가 송정역사보다 작은 동대구역사와 신경주역사는 각각 3만5186㎡, 3만0693㎡에 이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와 함께 윤판 광주시 교통정책연구실장이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최완석 광주대 교수의 사회로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녹색성장실천본부장, 박석민 코레일 광주부본부장, 임영길 호남대학교 교수, 송건 대호건축사사무소 소장, 박준필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등 5명의 전문가가 토론을 벌인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부 고

류재필모친 경주 이씨 채례님께서 2010년 10월 6일 오후 3시 36분 (음력 8월 29일) 노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

빈 소 : 광주 무등장례식장
발인일시 : 2010년 10월 8일 오전 9시
장 지 : 전남 영암군 금정면 안노리 선영하

2010년 10월 6일

아들 류재필
딸 면리 고영희
손자 류김전박강 재순
손녀 재창
외손녀 임재문
외손 재광
호상 류재경

광 재서지선정진승승우준정순창문광경희하영영귀순재재재재재

열 영영형정균선화률경선선태수선선선경경남자선례연민일희필

(부의금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연락처 (011)625-2202 (010)7744-0885